

## 청소년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 및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강훈<sup>1</sup>, 한상훈<sup>1\*</sup>, 구주형<sup>1</sup>  
<sup>1</sup>충남대학교 교육학과

### Study of Adolescents' Academic Personality Types, Learning Behavioral Types and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

Hun Kang<sup>1</sup>, Sang-hun Han<sup>1\*</sup>, Ju-hyeong Ku<sup>1</sup>

<sup>1</sup>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 및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측정도구로는 김만권과 한종철(2002)이 개발한 U&I 학습유형검사와 민경진(2006)이 번안한 학습동기 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청소년 23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중 부가된 조절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중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는 학습성격유형 중 규범형이 행동형이나 이상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범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반항적이지 않고 성취도가 높다. 넷째, 자율적이고 내재적 동기에 가까울수록 공부에 대한 자기목표도 높고 성취도 높다.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대부분의 학습행동유형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academic personality types (APT), learning behavioral types (LBT) and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 (SDLM). Regarding the measuring tools, the U&I APT test developed by Man-kwon KIM and Jong-cheol HAN (2002) and the learning motivation test translated by Kyeong-jin MIN (2006) were used. The study collected data from a total of 237 adolescents. First, gender did not influence the APT and LBT, and in terms of the introjected regulation as in the SDLM, female students were observed to have greater than the male students. Second, the normative type as in the APT was understood to have an identified regulation, an integrated regulation and an internal motivation as in the SDLM higher than those of the behavioral type or ideal type. Third, the normative type would be less rebellious and work harder to achieve a goal compared to the other types. Fourth, when adolescents have this motivation more voluntary and internal, they pursue greater goals for themselves, trying harder to fulfill their goals. The SDLM appeared to be related to most of the LBT.

**Key Words** : Academic personality types(APT), Learning behavioral types(LBT),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DL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도가 몇 번에 걸쳐 수정되고 변

화되어 다양한 입학전형을 제도화했지만 각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유치하려는 기저에도 학생의 기본적인 학업성취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학업성취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진학 및 진로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

\*Corresponding Author : Sang-hun Ha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el: +82-10-5603-0391 email: hoona@cnu.ac.kr

Received June 18, 2014

Revised (1st July 10, 2014, 2nd July 21, 2014)

Accepted August 7, 2014

요한 필수적 요소가 되기도 하며 높은 학업성취는 개인의 만족감과 자아효능감을 높여주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나아가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개인이 만들어 낸 학업성취는 한 사람의 성장과정의 성과물이며 적응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요즘같이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오늘날까지도 높은 학업성취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희망이다.

이와 같이 높은 학업성취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율적인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학습전략 증진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업성취가 증진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 또한 학습동기를 갖게 되면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학습을 대하는 성격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 그리고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학습전략을 습득하게 되면 학습동기의 증진에는 한계가 있다.

성격유형에 따라 개인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또한 학문적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성격유형과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양식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학업성취가 학습의 결과로 성격유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고 학업성취를 위하여 각 개인의 성격에 맞는 학습양식을 강조하였다[2]. 또한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학업 성취도도 높은 반면,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낮은 학습자는 노력도 적게 하였고 성적도 낮았다고 보고하였다[3]. 국내에서도 자기결정성 동기의 구성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다 자기결정적일수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취도도 높은 반면, 자기결정성 정도가 낮은 학생은 노력도 적게 하고 성적도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4].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초·중·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특정 과목의 학업성취,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 그리고 학습동기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D광역시 44개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유형검사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격유형과 행동유형을 분석한 후 학습동기와

의 관련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학업상담 및 심리적 특성인 학습동기를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성별에 따른 학습성격유형, 학습행동,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 둘째,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는 어떠한가?
- 셋째,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행동유형의 차이는 어떠한가?
- 넷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습행동유형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학습성격유형

성격이란 다른 사람과 구분 짓는 개인의 지속적으로 일관된 심리(정서, 사고, 동기)와 행동특성을 말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당한 방법 중 하나이다.

성격을 정의하려는 전통적인 이론은 기질만을 강조하여 인간의 내적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상황을 무시하는 입장과, 반대로 인간의 내적 특성을 무시하고 상황만을 강조하는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두 입장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의에서, 성격이란 상황에 대한 일관된 반응 패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일련의 특성들이라고 하였다[5]. 즉, 성격이란 개인의 생각과 행동경향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조직체로서 개인마다 갖는 독특성, 일관성,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일상적으로 부여되는 학습 상황은 개인마다 독특성, 일관성, 역동성 등의 일관된 반응 패턴을 설명할 수 있어 학습이라는 상황을 적용하여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학습성격유형은 학습자의 성격적인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성격유형을 디오니소스형 기질, 에피메테우스형 기질, 프로메테우스형 기질, 아폴로형 기질 등 4가지 기질로 분류했으며[6], 4가지 기질적인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학습에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하여 4가지 학습

유형으로 구분하였고[7], 4가지 학습유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Actual-Spontaneous Learner는 행동형, Actual-Routine Learner는 규범형, Conceptual-Specific Learner는 탐구형, Conceptual-Global Learner는 이상형으로 분류하였다[8].

### 2.1.1 행동형

행동형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활동하기를 좋아하며 직접 체험적으로 학습하기를 좋아한다. 경쟁적이고 모험적이어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성장한다. 그리고 관습이나 규칙에 얽매이기를 매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지시나 통제를 받으면 반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건 대비나 준비하기를 싫어하며 매일매일 판에 박은 듯한 일과에 쉽게 싫증을 느껴 자극적이면서 변화하는 일상을 요구한다.

### 2.1.2 규범형

규범형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규칙이나 모범적인 행동으로 윗사람(부모, 교사 등)을 호모하게 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른, 교사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책임감이 강하고 매우 성실하며 자신이 맡은 일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수행해내는 완벽을 추구하는 유형이며, 부모나 교사의 지시를 어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 자리나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라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질서 있는 학습분위기를 선호한다.

### 2.1.3 탐구형

탐구형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이 유형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 모두 알려고 하며, 무엇이든 간에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하고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떠올랐는가, 그것이 다른 생각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모순점은 무엇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왜 사물(사람)은 그러한 성질(성향)을 지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혜를 축적하고 지식을 획득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영감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

업방식이 효과적이다.

### 2.1.4 이상형

이상형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갈망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고 비경쟁적, 조화로운 관계를 선호하는 편이며 경쟁적인 상황, 갈등적인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학생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며 인정해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며, 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해주며 심지어 기분을 읽어주는 교사를 잘 따른다.

학습성격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로서 탐구형이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행동형은 학업성취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한 규범형이 학습전략을 가장 잘 사용한 반면, 이상형은 학습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성격과 학업성취 연구에서 규범형이 다른 유형보다 학습동기, 학습전략,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주장하였으며[10,11], 또한 수학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규범형은 발표학습이 효과적이고, 이상형은 자유롭고 인간적인 분위기의 토론학습이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12].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적합한 교수·학습방식을 적용해야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학습행동유형

학습행동유형 검사는 Heacox(1991)[13]의 9개의 하위 척도(반항형, 적당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의존형, 잡념형, 싫증형, 만족형, 외골수형)로 나누어진 것을 학업과 관련된 학습자의 정서 및 행동특성을 측정하는 6개의 하위척도(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골형)로 만들어졌다[8].

### 2.2.1 반항형

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반감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공부에 대한 태도,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수업시의 행동,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을 나타내는 문항들도 구성되어 있다.

### 2.2.2 완벽주의형

학습할 때에 꼼꼼함과 완벽성에 대해 알아보는 척도로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집착, 학업 성과에 대한 기대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2.2.3 고군분투형

학업에 대한 열의와 노력,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척도로서 주로 학습에 대한 막막함, 노력에 비해 떨어지는 성과, 학습에 대한 답답한 심정 등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2.2.4 잡념형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학습에 대한 집중의 어려움, 불안하고 우울한 정서적인 상태, 친구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2.2.5 만족형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의 현재 학업성적 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학습시의 태도, 학업에 대한 동기, 정서적 상태, 주위환경에 대한 여건, 부모, 교사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2.2.6 외곶형

특정 과목에 대한 선호도와 그 과목에 대한 노력의 정도 및 학업성적 수준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이러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유형검사는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으로 구분[8]되는데 학습성격유형과 관련한 논문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학습행동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학습행동유형이 학업성취나 학습에 임하는 자기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연구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 2.3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동기관 학습자가 학습하려는 의지 및 노력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또

얼마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이 결정된다.

여섯 가지 자기결정성 동기유형은 Table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자율성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의 동기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진다. 아무런 동기도 없는 무동기부터 보상이나 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여 자기결정성의 부재상태에서 수행되는 외재적 동기, 그리고 완전한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내재적 동기로 구별된다[14].

### 2.3.1 무동기(Amotivation)

무동기는 자기결정성 연속선의 가장 왼쪽에 위치하며 자기결정성이 없어 학습동기가 전혀 내면화 되지 않아 행동의 의지가 결핍되어 있고,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없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행동에 가치부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아 결국 학습된 무기력 상태를 경험하는 특성을 보인다.

### 2.3.2 외재적 동기(External Motivation)

#### 2.3.2.1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외적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에서 가장 낮은 자율성을 갖는 형태로 동기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내재적 동기와 대조되는 개념이면서 내재적 동기를 저해시키는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외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거나 또는 압력, 처벌 등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타율적 행동이다.

#### 2.3.2.2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즉, 교사가 자신을 좋은 학생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과제를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등의 이유로 과제를 수행한다. 또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는 외부의 규칙이나 요구를 따르고는 있지만 행동에 대한 조절을 막 내면화시키는 단계로써 자기결정 의지가 개입은 되나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외적 조절과 차별화 된다.

#### 2.3.2.3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자신이 특정 신념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지각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

울적 동기이며 내재적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과제 자체에 대한 기쁨이나 자기만족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로 분류되며[15] 외부의 동기화가 자아의 가치 또는 믿음과 통합하는지가 통합된 조절과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3.2.4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의 가장 자율적인 형태로 동일시된 조절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가치, 목표, 욕구가 통합된 때 나타난다[16].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등 내재적 동기와 공통점이 많고 많은 특성을 공유하지만 그 과제 자체에 대한 고유한 관심이나 즐거움보다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 행해지기 때문에 여전히 외재적이다.

2.3.3 내재적 동기(Internal Motivation)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성 연속선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며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이다.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만족, 호기심과 같은 내면적 요인들에 의해 동기화 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이다. 이는 최고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을 갖는 단계이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내적 조절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14,17] 그러한 내면화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을 갖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동기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관련 연구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수행되어 왔다[17-20]. 특히,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습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취도도 높은 반면, 자기결정성이 낮은 학생은 노력도 적게 하였고 성적도 낮았다[3]는 연구 이외에도 자기결정성 동기의 구성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기결정적일수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취도가 높은 반면, 자기결정성 정도가 낮은 학생은 노력도 적게 하고 성적도 낮았다[4]고 보고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에 의해서 학교 공부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각한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되어야 학습수행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21]는 연구 결과도 있다.

[Table 1] 6 types according to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

		← non-self determination → self determination →				
motivation	A motivation	external motivation				internal motivation
regulation	non-regulation	external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identified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internal regulation
location	none	external	little external	little internal	internal	internal
related regulation	non-intended non-valued Inability Lack of control	Subject to external restrictions, external compensation and punishment	self-control of Ego involvement, internal compensation and punishment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worth having	coincidence, awareness, Self-integration	interest, amusement, unique content

Source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268. (p.237).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캠프에 참여한 D광역시 소재 44개 중학교 청소년 총 485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U&I 학습유형검사를 수행하고 유형별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과 학습행동유형 및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검사에서 문항을 누락하거나 다중 체크한 것을 제외하여 남학생 66명(27.8%), 여학생 171명(72.2%)으로 237명을 실제 연구대상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정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Object

gender	Survey Participants(%)	Analysis(%)
male	147 (30.3)	66 (27.8)
female	338 (69.7)	171 (72.2)
total	485 (100.0)	237 (100.0)

3.2 측정도구

3.2.1 U&I 학습유형검사

학습자의 학습과 관련된 성격유형과 행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만권과 한종철(2001)[8]이 개발한 U&I 학습유형검사를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학습자의 세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데 각 영역별 특징을 분류하면, 첫째, 학습자의 성격을 측정하는 학습성격유형 52문항과, 둘째, 학습자의 학습행동 및 태도를 측정하는 학습행동유형 54문항, 세 번째, 학습자의 학습방법과 학습전략기술을 측정하는 학습기술능력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 부분만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U&I academic personality type

domain	sub scales	counts
learning personality type	the behavioral type, the normative type the inquiring type and the ideal type	52
learning behavioral type	Rebellion type, Perfectionism type, Struggling type, Idle thoughts type, Content type, Straight type	54

학습성격유형은 학습과 관련된 성격유형을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4가지로 각 13문항 총 52개 진위형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들 각 하위척도의 문항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행동형 .68, 규범형 .57, 탐구형 .60, 이상형 .61 이다. 각 문항들은 학생들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는 2점, '아니다'는 0점으로 합산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처리하며 처리규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느 한 유형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대표 학습성격유형으로 선정된다. 또한 상위유형 2개가 18점 이상의 동점인 경우 규범형, 이상형, 행동형, 탐구형 순으로 처리하였으며, 상위유형 2개가 16점 이하의 동점인 경우에는 이상형, 탐구형, 행동형, 규범형 순으로 대표 학습성격유형으로 처리하였다. 단 16점 이상의 유형점수가 3개 이상이거나, 모든 유형점수가 14점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 한 가지 대표 학습성격유형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곤란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8]. 학습행동유형은 6가지 유형으로 각 9문항 총 54개로써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3.2.2 학습동기 검사

동기유형 측정도구는 Ryan과 Deci(2000)[14]의 조사도구를 김아영(2002)[22]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습관에 맞도록 개발한 도구를 민경진(2006)[23]의 연구에서 변안한

조사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로 구성된 Likert식 6점 척도이며 무동기를 제외하고 외적 조절 6문항, 부과된 조절 6문항, 확인된 조절 6문항, 통합된 조절 6문항, 내적 동기 6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하위척도의 문항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외적 조절 .78, 부과된 조절 .77, 확인된 조절 .83, 통합된 조절 .81, 내적 동기 .85 이다.

### 3.3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선정하고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습성격유형, 학습행동유형,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t-test를 수행하였다. 둘째, 학습성격유형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 셋째, 학습성격유형별 학습행동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를 사용하였다. 넷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습행동유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성별에 따른 학습성격유형, 학습행동유형,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

#### 4.1.1 성별에 따른 학습성격유형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학습성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학생은 66명 여학생 171명을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행동형은 남학생(30.4%), 여학생(69.6%)이며 규범형은 남학생(27.0%), 여학생(73.0%), 탐구형은 남학생(80.0%), 여학생(20.0%) 이상형은 남학생(25.2%), 여학생(74.8%)의 비율로 분석이 되었다.

성별에 따른 학습성격유형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  $\chi^2$  통계값은 7.448, 유의확률은 .05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Gender differences in learning personality type

Unit : N(%)

learning personality type \ gender	the behavior type	the normative type	the inquiry type	the ideal type	total
male	17 (30.4)	10 (27.0)	4 (80.0)	35 (25.2)	66 (27.8)
female	39 (69.6)	27 (73.0)	1 (20.0)	104 (74.8)	171 (72.2)
total	56 (100)	37 (100)	5 (100)	139 (100)	237 (100)

$\chi^2 = 7.448$  (df = 3,  $p = .059$ )

4.1.2 성별에 따른 학습행동유형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학습행동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성별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학습행동유형으로 설정한 후 t-test를 수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결과, 반항형( $t=.82, p=.42$ ), 완벽주의형( $t=-.85, p=.40$ ), 고군분투형( $t=-.16, p=.87$ ), 잡념형( $t=.34, p=.73$ ), 만족형( $t=-.27, p=.79$ ), 외곬형( $t=.88, p=.38$ )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Gender differences in learning behavioral type

learning behavioral type	gender	n	M	SD	t
Rebellion type	male	66	44.92	7.80	.82
	female	171	43.94	8.50	
Perfectionism type	male	66	48.56	7.96	-.85
	female	171	49.58	8.45	
Struggling type	male	66	49.88	8.04	-.16
	female	171	50.08	8.62	
Idle thoughts type	male	66	51.06	10.80	.34
	female	171	50.58	9.21	
Content type	male	66	50.70	9.42	-.27
	female	171	51.04	8.53	
Straight type	male	66	52.09	8.87	.88
	female	171	50.94	9.11	

4.1.3 성별에 따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

성별에 따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는 성별, 종속변수를 학습동기로 설정한 후 t-test를 수행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결과, 외적 조절( $t=.41, p=.68$ ), 확인된 조절( $t=-.28, p=.78$ ), 통합된 조절( $t=-1.30, p=.20$ ), 내재적 동기( $t=1.20, p=.23$ )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부가된 조절( $t=2.09*$ )의 경우 여학생( $M=3.70, SD=.80$ )이

남학생( $M=3.45, SD=.8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6] Gender differences in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

type	gender	n	M	SD	t
external regulation	male	66	2.42	.86	.41
	female	171	2.38	.75	
introjected regulation	male	66	3.45	.88	2.09*
	female	171	3.70	.80	
identified regulation	male	66	3.95	.88	-.28
	female	171	3.99	.80	
integrated regulation	male	66	4.08	.79	-1.30
	female	171	4.23	.81	
internal motivation	male	66	3.08	.99	1.20
	female	171	2.93	.82	

\* $p < .05$

4.2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차이

학습성격 4유형 간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외적 조절( $F=2.62$ )과 부가된 조절( $F=2.73$ )은 학습성격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확인된 조절( $F=15.13***$ ), 통합된 조절( $F=16.45***$ ), 내재적 동기( $F=20.74***$ )는 학습성격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한 결과,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규범형이 행동형과 이상형보다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 differences in personality learning type

type	behavior (a)	normative (b)	inquiry (c)	ideal (d)	total	F	Scheffé post hoc
	(n=56) M(SD)	(n=37) M(SD)	(n=5) M(SD)	(n=139) M(SD)	(n=237) M(SD)		
external regulation	2.46(.86)	2.19(.64)	2.80(1.12)	2.40(.77)	2.39(.78)	2.62	
introjected regulation	3.67(.95)	3.83(.65)	3.23(.93)	3.58(.82)	3.63(.83)	2.73	
identified regulation	3.73(.95)	4.52(.43)	4.26(.88)	3.92(.79)	3.98(.82)	15.13***	a<b b>d
integrated regulation	3.97(.89)	4.77(.47)	4.40(.73)	4.11(.78)	4.19(.81)	16.45***	a<b b>d
internal motivation	2.85(.90)	3.62(.68)	3.56(1.21)	2.83(.82)	2.97(.87)	20.74***	a<b b>d

\*\*\* $p < .001$

### 4.3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행동유형의 차이

학습성격 4유형 간에 학습행동유형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결과 학습행동유형 중 반항형의 경우 학습성격 4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 $F=2437.20^{***}$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성격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행동형은 규범형 보다 높고 규범형은 탐구형과 이상형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형( $F=1169.74^{**}$ )과 만족형( $F=1930.92^{***}$ )의 경우 학습성격 4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규범형은 행동형과 이상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군분투형의 경우에는 학습성격 4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잡념형의 경우 학습성격 4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 $F=1058.27^{**}$ )로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이상형이 규범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곬형의 경우 학습성격 4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 $F=1439.66^{***}$ )로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규범형은 행동형과 이상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 4.4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습행동유형의 관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습행동유형 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결과 외적 조절은 반항형( $r=.24^{**}$ ), 고군분투형( $r=.19^{**}$ ), 잡념형( $r=.24^{**}$ ), 외곬형( $r=.19^{**}$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만족형( $r=-.26^{**}$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과된 조절은 완벽주의형( $r=.41^{**}$ )과 잡념형( $r=.20^{**}$ )

이 정적 상관관계이며 반항형( $r=-.26^{**}$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확인된 조절은 완벽주의형( $r=.41^{**}$ )과 만족형( $r=.35^{**}$ )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항형( $r=-.43^{**}$ )과 외곬형( $r=-.14^{*}$ )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합된 조절도 완벽주의형( $r=.38^{**}$ )과 만족형( $r=.37^{**}$ )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항형( $r=-.47^{**}$ )과 외곬형( $r=-.22^{**}$ )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재적 동기는 완벽주의형( $r=.26^{**}$ )과 만족형( $r=.32^{**}$ )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반항형( $r=-.35^{**}$ )과 고군분투형( $r=-.13^{*}$ ) 그리고 외곬형( $r=-.14^{*}$ )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8] learning behavior type differences in personality learning type

type	behavior(a) (n=56)	normative (b) (n=37)	inquiry (c) (n=5)	ideal (d) (n=139)	total (n=237)	F	Scheffé post hoc
	M(SD)	M(SD)	M(SD)	M(SD)	M(SD)		
Rebellion type	44.63(9.09)	36.97(6.03)	49.60(9.29)	45.78(7.44)	44.22(8.31)	2437.20***	a>b b<c b<d
Perfectionism type	48.75(8.25)	54.27(8.18)	52.00(12.26)	48.09(7.79)	49.30(8.31)	1169.74**	a<b b>d
Struggling type	49.43(8.79)	50.70(10.32)	51.00(5.74)	50.04(7.88)	50.02(8.44)	41.70	
Idle thoughts type	49.89(9.67)	46.51(8.59)	56.20(7.82)	51.96(9.68)	50.71(9.66)	1058.27**	b<d
Content type	50.66(9.39)	57.43(7.59)	47.40(10.71)	49.46(8.01)	50.95(8.77)	1930.92***	a<b b>d
Straight type	51.80(7.39)	45.73(9.10)	56.40(6.80)	52.33(9.20)	51.26(9.04)	1439.66***	a>b b<d

\*\* $p<.01$ , \*\*\* $p<.001$

[Table 9]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behavior type and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

	external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identified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internal motivation	Rebellion type	Perfectionism type	Struggling type	Idle thoughts type	Content type	Straight type	M	SD
external regulation	1											2.39	.78
introjected regulation	.49**	1										3.63	.83
identified regulation	.16*	.58**	1									3.98	.82
integrated regulation	.09	.61**	.86**	1								4.19	.81
internal motivation	.18**	.45**	.73**	.68**	1							2.97	.87
Rebellion type	.24**	-.26**	-.43**	-.47**	-.35**	1						44.22	8.31
Perfectionism type	.01	.41**	.41**	.38**	.26**	-.40**	1					49.30	8.31
Struggling type	.19**	-.01	-.09	-.12	-.13*	.34**	.07	1				50.02	8.44
Idle thoughts type	.24**	.20**	-.07	-.07	-.10	.39**	.19**	.48**	1			50.71	9.66
Content type	-.26**	.10	.35**	.37**	.32**	-.77**	.16*	-.50**	-.72**	1		50.95	8.77
Straight type	.19**	-.00	-.14*	-.22**	-.14*	.52**	-.03	.37**	.44**	-.50**	1	51.26	9.04

\* $p<.05$ , \*\* $p<.01$ , \*\*\* $p<.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 및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U&I 학습유형검사 측정도구[8]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도구[23]를 활용하여 D광역시 청소년 237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중 부가된 조절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자신을 좋은 자녀 또는 학생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한다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더 갖고자 하는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중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는 학습성격유형 중 규범형이 행동형과 이상형 보다 높다. 규범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규칙이나 모범적 행동을 지향하고 책임과 성실을 바탕으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학습하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내재화에 가까운 세 가지의 동기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가 외적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동기와는 의미 있는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24]와 규범형이 다른 학습유형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고 주장한 결과[11]와 일치한다. 이는 질서와 규칙이 중시되는 학교현장에서 내재적 동기에 가까운 학습동기와 규범 성향을 갖은 학생이 학업성취가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규범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반항적이지 않고 성취도가 높다. 이는 규범형이 규칙이나 모범적인 행동으로 윗사람(부모, 교사 등)을 흐뭇하게 하며 책임과 성실성으로 자신이 맡은 일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수행해 내는 완벽을 추구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높은 성취를 나타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규범형에 비해 이상형은 잡념이 높았는데, 이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형의 특성상 끊임없이 잡념과 고민이 많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행동형과 이상형은 외적이 높았는데, 이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 과목의 교사에 대해 가감 없이 드러내는 행동형 특성과 또한 좋아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를 구분하여 대하려는 이상형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자율적이고 내재적 동기에 가까울수록 공부에 대한 자기목표도 높고 성취도 높다.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대부분의 학습행동유형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항형과 외곺형의 경우 외적동기에서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확인된 동기, 통합된 동기, 내재적 동기에서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습에 대한 반항적 행동과 특정과목이나 편향된 학습 선호 특성상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완벽주의형과 만족형은 외적동기와의 상관이 없거나(완벽주의형) 부적상관(만족형)을 나타낸 반면,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에서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과된 조절은 완벽주의형에서는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만족형에서는 상관이 없었다. 이는 계획과 점검을 통해 현재의 학습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아보는 완벽과 만족의 성격 특성상 내재적 동기와 그에 가까운 동기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여 준다. 고군분투형과 잡념형은 외적 조절과 정적관계를 나타낸 반면, 내재적 동기와는 부적상관(고군분투형)을 나타내거나 무상관(잡념형)을 나타냈다. 이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모르거나 그로 인해 학습의 부담으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이 학습동기를 저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학습성격유형과 학습행동유형이 학습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학습상황에서 학습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성격유형은 1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 뚜렷한 성격을 표방하는 기본 4가지 유형으로만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많은 학생들이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추후에는 조합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습동기간의 관계까지도 확장하여 탐색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성격유형별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식이 다르므로 유형별 적용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행동형은 경쟁, 시험, 도전, 활동 등의 강점을 보이며, 규범형은 기획, 계획, 순서, 구조화, 책임, 성실 등의 강점을 갖고, 탐구형은 깊이 있는 개념과 원리, 지식과 창의성 등의 강점을 보이며, 이상형은 구성원의 화합과 친근감, 인간애 등의 강점을 갖는다. 이러한 학습성격유형의 특성을 발현될 수 있도록 실제 교육이 일어나는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적용

해 보는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학습성격유형별 교수-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을 때 실제 학업성취도와 학습동기가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단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1] M. K. Kim, K. H. Lee,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3), 491-504, 2003.
- [2] J. T. Kim, H. S. Shim, *MBTI*, Korea Psychological Test Institute, 1991.
- [3] Vallerand, Robert J. & Deshaies, Paul. & Cuerrier, Je, Ajzen and Fishbein's theory of reasoned action as applied to moral behavior : A confirmatory analysis. *Psycsca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No13, 1992.
- [4] J. H. Yim, J. H. Ryu, "The impact of self-determin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9(2), 163-181, 2007.  
DOI: <http://dx.doi.org/10.3946/kjme.2007.19.2.163>
- [5] C. I. Ahn, *Forestry Psychology*, SIGMA PRESS, 2004.
- [6] Keirse, D & Bates, M, *Please understand me: An essay on temperament style*. Del Mar, CA: Prometheus Publishers, 1978.
- [7] Golay, K, *Learning Patterns and Temperament style*. Fullerton, CA: MANAS-SYSTEMS, 1982.
- [8] M. K. Kim, J. C. Han, *Learning problems text book*, Yonwoo Psychological Institute, 2001.
- [9] Y. K. Seo, "The Effect of Learner's Types on Academic Achievement : Mediated by Learning Strateg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3.
- [10] K. A. Lee, N. H. Yoo, E. K. Lee, J. Y. Chon, K. H. Lee,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Personality Types and Major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Variabl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1), 107-121, 2004.
- [11] E. J. Je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cademic Personality Type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udent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9.
- [12] S. K. Jeon, "The Effect that Teaching Methods have on Learner's Types based Mathematical Academic Achievements", *Major in Mathemat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 min University*, 2008.
- [13] Heacox, D, *Up from underachievement: How teacher, student, and parents can work together to promote student success*. MN: Free Spirit Publishing Inc, 1991.
- [14] Ryan, R. M & Deci, E. L,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25, 54-67, 2000.  
DOI: <http://dx.doi.org/10.1006/ceps.1999.1020>
- [15] A. Y. Kim, S. A. Oh, "Classification of Motivation on the Continuum of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4), 97-119, 2001.
- [16] K. H. Koh, "A study on the types of academic self-regulation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2.
- [17] A. Y. Kim,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69-187, 2002.
- [18] Ryan, R. M & Connell J. P,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749-761, 1989.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7.5.749>
- [19]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2001.
- [20] B. G. Bak, J. U. Lee, S. P. Hong, "Reconstructing the classificatory pattern of Learning motivation proposed by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3), 699-717, 2005.
- [21] M. S. Kim, "The Relationships of Self-Determination,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Strategies",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6.
- [22] A. Y. Kim,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15(1), 157-187, 2002.
- [23] K. J. Min, "The effects of reading instruc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on reading proficiency and learning motivation depending on learners' personality type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24] B. Y. Choi, K. H. Lew,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Research of Education and Culture*, 16(3), 183-203, 2010.

---

**강 훈(Hun Kang)**

[정회원]



- 2013년 2월 : 국제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뇌교육학과 (뇌교육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평생교육, 리더십, 진로·자기주도학습

---

**한 상 훈(Sang-Hun Han)**

[정회원]



- 1985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1992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 1999년 10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성인학습, HRD

---

**구 주 형(Ju-hyeong Ku)**

[정회원]



- 2012년 2월 : 경기대학교 문화예술 대학원 독서지도학과 (독서지도학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평생교육, 독서논술, 진로·자기주도학습